

**The Gospel of Mark**

Sermon 55 – Sermon Notes

Title: “The Sadducees and resurrection”

Scripture: Mark 12:18-27

Date preached: September 24th 2023

**Scripture: Mark 12:18-27**

**18 Then *some* Sadducees, who say there is no resurrection, came to Him; and they asked Him, saying: 19 “Teacher, Moses wrote to us that if a man’s brother dies, and leaves *his* wife behind, and leaves no children, his brother should take his wife and raise up offspring for his brother. 20 Now there were seven brothers. The first took a wife; and dying, he left no offspring. 21 And the second took her, and he died; nor did he leave any offspring. And the third likewise. 22 So the seven had her and left no offspring. Last of all the woman died also. 23 Therefore, in the resurrection, when they rise, whose wife will she be? For all seven had her as wife.”**

**24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Are you not therefore mistaken, because you do not know the Scriptures nor the power of God? 25 For when they rise from the dead, they neither marry nor are given in marriage, but are like angels in heaven. 26 But concerning the dead, that they rise, have you not read in the book of Moses, in the *burning bush passage*, how God spoke to him, saying,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27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the God of the living. You are therefore greatly mistaken.”**

18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19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 어느 곳에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결혼해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21 그리고 둘째가 형수와 살다가 자식 없이 죽고 셋째도 그랬으며

22 일곱이 모두 그렇게 자식 없이 죽고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23 이렇게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24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25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며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26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모세의 떨기나무 구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27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Review**

Before we examine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 us take a moment to review what we looked at in our last study.

We found ourselves still on the Tuesday of passion week. It's an event filled day that begins with Jesus giving the disciples a lesson regarding the withered fig tree as they travel from Bethany into Jerusalem. Once they arrive in the temple the action only intensifies. Not long after arriving Jesus is confronted by a delegation of Jewish religious leaders. This is the first of five “controversy dialogues” or exchanges that the Lord Jesus has with various combinations of Jewish leaders. The first challenge centres on the origins of Jesus authority. These men wished to know where His authority come from.

The second dialogue was Jesus response to their rejection of Him as Messiah. He cleverly did this

through the use of the parable of the wicked vinedressers. This parable highlighted what the consequences would be for rejecting the one God sent to save. It would be that God took the nation and their power away from them.

The third controversy dialogue was the focus of our study last time. It regarded whether it was morally right for Jews to pay taxes to Caesar (Rome). Let us briefly recap the main points from last week.

Jerusalem was located in the province of Judea. A region that since 6 AD had been occupied and controlled by the Romans. This meant that the people living there were subject to Roman taxes. The specific tax in view in this exchange was the yearly “poll or head tax.” This tax, which amounted to one silver denarius, the equivalent of a days wage for a common working man was levied on all adult men and women. It was, as I'm sure you can imagine a very popular tax that the Jewish people looked forward to paying. I'm joking of course, the issue of the poll tax was highly controversial and guaranteed to stir up passions. The Jewish zealots, who were a radical anti-Rome political sect strongly opposed the tax and refused to pay. The Pharisees also greatly disliked the tax, but did reluctantly pay it. The Herodians who were pro-Rome and supported the Roman puppet king Herod willingly paid the tax. So the group of Pharisees and Herodians who approached Jesus knew that this was a controversial and raw subject. This was intentional. They deliberately picked this subject in the hope of trapping or ensnaring Jesus in His words.

They ask Him straight out if it is right or not to pay the tax to Caesar. As I said last time they are attempting to impale Jesus on the horns of a dilemma. Whatever answer He provides He will find Himself in trouble. If He says that it is right to pay the tax He will instantly alienate the common people. They hated the tax and anticipated a “political” messiah who would lead them to overthrow their oppressors. If however He said it was wrong to pay the tax then He'd please the people but the Herodians could report Him to the Roman authorities. Jesus would be branded a rebel or a revolutionary. Rome would not stand for treason. Jesus would be arrested or worse. So how could Jesus answer and avoid impaling Himself on the horns?

Well, He asked someone to bring Him a denarius and then showed the coin to His onlookers. He asked them to look closely and identify whose image and inscription the coin bore. It of course depicted Tiberius Julius Caesar Augustus the Roman emperor. That a coin bearing his image was being used in that geographic area meant that He was the legitimate authority in this region. Coins in the ancient world were a tangible sign of where a rulers dominion lay. So in Judea it was Rome that provided the security, safety and infrastructure that in many ways benefited the Jews. Therefore Jesus told them they should pay what was due to Rome. God is sovereign over all things therefore we should not forget that it is God who has appointed those in authority over us. Because of this God expects us to live in submission to our rulers. The only exception to this is if they order us to go against something God has commanded us to do. So in most situations to be unruly and rebel against our leaders and rulers is by extension to rebel against God. But Jesus crucially adds that we must also give to God what He is due. Caesar's image was stamped on the coin, but God's image is stamped on us. We therefore should give ourselves completely and fully to Him.

The Lord Jesus gave the perfect response to their question. Having no comeback the Pharisees and Herodians slipped away. Today we will see the next set of challengers attack the Lord Jesus.

오늘의 구절을 검토하기 전에 지난 주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전히 고난주간 화요일이었습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제자들에게 마른 무화과나무에 관한 교훈을 주신 것을 시작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는 날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도착한 후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도착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단과 마주칩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여

러 부류의 유대 지도자들과 나누신 다섯 가지 “논쟁의 대화”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도전은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에 중점을 둡니다. 이 사람들은 그분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두 번째 대화는 자신을 메시아로 거부한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악한 포도원지기들의 비유를 사용하여 현명하게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보내신 자를 거절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권세를 그들에게서 빼앗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논쟁은 지난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이사(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지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AD 6년부터 로마인들이 점령하고 통제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번 논쟁의 주제가 되는 세금은 매년 내는 "인두세"였습니다. 이 세금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1 데나리온으로 모든 성인 남성과 여성에게 부과되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내고 싶어하는 세금이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인두세 문제는 논란이 많았고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이 확실했습니다. 급진적인 반로마 정치 조직인 유대 열성주의자들은 세금 부과에 강력히 반대하고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세금을 매우 싫어하면서도 마지 못해 냈습니다. 친로마 성향을 가진 꼭두각시 왕인 헤롯을 지지한 헤롯당원들은 기꺼이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다가온 바리새인과 헤롯당 무리는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노골적인 주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에 덫을 놓아 함정에 걸리게 하려고 일부러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내지 않는 것이 옳은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그들은 딜레마의 뿔에 예수님을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 그는 곤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면 백성들이 그를 배척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금을 싫어했고, 압제자들을 타도할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세금을 내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사람들은 기뻐하겠지만 헤롯당은 그분을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는 반역자나 혁명가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로마는 반역을 옹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체포되거나 그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셔서 이 난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데나리온 한 닢을 가져오라고 요청하시고 그 동전을 구경꾼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동전에 누구의 얼굴과 글이 새겨져 있는지 자세히 보라고 하십니다. 물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얼굴입니다. 그의 형상이 새겨진 주화가 그 지역에서 통용된다는 것은 그 황제가 이 지역에서 합법적인 권위를 갖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세계의 동전은 통치자의 통치가 미치는 곳인 지를 알려주는 가시적인 표시였습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여러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보안, 안전 및 기반 시설을 로마가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로마에게 합당한 것을 유대인이 지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할 권위자들을 세우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며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어기도록 그들이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지도자와 통치자에 대해 법을 어기고 반역하는 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결정적으

로 덧붙이셨습니다. 동전에는 가이사(제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만 우리에게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완벽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슬그머니 빠져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도전자들이 주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8 Then *some* Sadducees, who say there is no resurrection, came to Him; and they asked Him, saying:**

I spoke before about the repeated challenges that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brought against the Lord Jesus. These challenges came through a series of “tough” questions purposefully designed to either trap our Lord, or else discredit Him and make Him look foolish. Let's imagine this whole situation as being like a boxing contest. In round one Jesus faced a combined team made up of the Pharisees and the Herodians. They were an odd pairing connected only by their mutual hatred for Jesus. They came to our Lord with what they thought was a knock out question regarding the issue of taxes. Jesus easily dodged their swing and gave them a bloodied nose. Round one ends in an easy victory for the Lord Jesus.

Here we come to round two. This time Jesus faces a different opponent. This time it is a group of Sadducees that come before Him. The Sadducees were well educated, sophisticated, influential and wealthy. No doubt they were confident that they could land a knock-out blow on Jesus.

I need to take a moment to say a few things about the sect of the Sadducees. It's important background that will better able us to understand what is going on here. We often lump the Sadducees and the Pharisees together and assume they were basically the same. Whilst they did have a shared interest in stopping Jesus in most other ways they were very different. When it came to public popularity there was no contest. The common people much preferred the Pharisees. In fact most people hated the Sadducees and with good reason. The Sadducees tended to side with Rome. This was not because they liked Roman rule or occupation, but they did so as a matter of personal expediency. You see they benefited greatly from the power and authority that Rome gave them and for this reason they supported Rome. The common people were not fooled, they saw right through this and hated them for it.

In terms of physical numbers the Sadducees were a relatively small sect. However they occupied many prominent position of power in Israel including in the Sanhedrin, and it was this that gave them an influence that went way beyond their size in number. In fact, you might be surprised to learn this is their only mention in Mark's gospel. There's a good reason for this. The Pharisees and scribes could be found nationwide. Wherever there were local synagogues there would be scribes and Pharisees. This meant that Jesus encountered, and was challenged by them on many occasions. The Sadducees by contrast were only connected with the temple in Jerusalem. This was why when the temple fell in 70 AD it signalled the end of the sect of the Sadducees.

When it comes to what they believed again we see that they held very different beliefs to the Pharisees. The first thing we need to recognise is that they were big fans of Moses. They only accepted his writings as being scripture. This meant that the Torah, the first five books of the Old Testament was the extent of God's revelation. They disregarded the remainder of the Old Testament, and paid no heed to the oral traditions of the elders that the Pharisees observed. Therefore they rejected any doctrine or teaching that did not appear in the first five books of the bible. For this reason they claimed that resurrection was not mentioned by Moses and as a consequence they did not believe in any kind of resurrection or future life. They were annihilationists, believing that the soul and the body perish together at death and vanish out of existence. In this respect they were outliers in Jewish society, their denial of any kind of resurrection set the Sadducees apart. The Pharisees, and most of the common people did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e Sadducees also rejected the existence of supernatural beings such as angels or demons.

So now with that little bit of helpful background lets look at their question.

## 18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 예수님을 대적하여 계속해서 도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우리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망신을 주고 어리석게 보이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고안된 일련의 "어려운" 질문을 통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권투 시합과 같다고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당으로 구성된 연합팀을 상대하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증오만으로 뭉친 이상한 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KO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먹을 쉽게 피하고 그들이 코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주 예수님의 손쉬운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상대를 만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교육을 잘 받았고, 세련되었으며, 영향력이 있고 부유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예수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잠시 사두개파에 관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함께 묶어서 그들이 비슷하다고 가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를 막는 데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매우 달랐습니다. 대중적인 인기에 있어서는 경쟁이 안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두개파를 미워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 편에 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통치나 점령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편의에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가 그들에게 부여한 권력과 권위로부터 큰 이익을 얻었고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로마를 지지했습니다. 대중들은 속지않았고 이런 점을 꿰뚫어보고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수적인 면에서 사두개파는 상대적으로 작은 종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헤드린을 포함하여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권력의 지위를 차지했고, 이로 인해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에서 그들이 언급된 유일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는 곳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그들로부터 도전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조적으로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 70년에 있었던 성전의 몰락이 사두개파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매우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모세의 열렬한 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모세가 기록한 글만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구약의 처음 다섯 권의 책인 토라(Torah)만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무시하고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구전 전통에 주의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의 처음 다섯 권에 나오지 않는 교리나 가르침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모세가 부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그 결과 어떤 종류의 부활이나 내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함께 멸망하고 존재도 사라진다고 믿는 절멸론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특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부활도 거부하는 것이 사두개인

들을 구별시켰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또한 천사나 귀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도 거부했습니다.

이제 설명드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9 “Teacher, Moses wrote to us that if a man’s brother dies, and leaves *his* wife behind, and leaves no children, his brother should take his wife and raise up offspring for his brother.**

Before we consider their question let's talk about the spirit in which they approached Jesus. Was this we might ask a legitimate theological inquiry? Were they really approaching Jesus to ask for His insight and wisdom? The answer of course is no. The Herodians and the Pharisees had come trying to trap Jesus. The Sadducees were coming with an altogether different reason. They want to expose Him as being a fool, or an invalid teacher. They want everyone to look at Him as if he's weird for holding to belief in the resurrection. They remember denied any possibility of the resurrection. No doubt as well-educated and sophisticated men they imagined they would easily be able to ridicule the “country bumpkin” from Galilee. So even though they come feigning respect and calling Him “teacher” just like the Herodians and Pharisees they were insincere.

Let's look at their question. They are referring back here to the law dealing with levirate marriage. This is first mentioned in Genesis 38:8 but is more fully outlined in Deuteronomy 25:5–10. Basically the practice made sure that if a married man died childless, his unmarried brother had to take the widow as a wife in order that a son and heir could be provided for the deceased man. This meant that the dead man's family name and inheritance would not perish. It also ensured that the childless widow was kept from destitution.

We see a couple of examples of the practice recorded in the bible. The first involves Tamar and Onan in Genesis 38. This relationship did not end well. I'll give you a spoiler, God killed Onan. A far better, in fact a wonderful example is the story of Ruth and Boaz. He acted as a kinsman-redeemer in effect saving Ruth and providing a happy future for her.

Let's look at the hypothetical situation they unfold before Jesus.

**19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보기 전에 그들이 예수께 접근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신학적 탐구였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통찰력과 지혜를 구하고 있을까요? 물론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헤롯당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왔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유로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보, 무능한 교사로 폭로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는 그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대중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가능성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교육을 잘 받고 세련된 사람들로서 갈릴리 출신의 “촌놈”을 쉽게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당과 바리새인들처럼 존경하는 척하며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역연혼 levirate marriage 과 관련된 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8 장 8 절에서 처음 언급되었지만 신명기 25 장 5~10 절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혼 남성이 자녀 없이 사망할 경우, 사망한 남성에게 아들과 상속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혼인 그의 형제가 과부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사람의 성과 상속 재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자녀가 없는 과부가 궁핍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8 장에서 다말과 오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좋게 끝나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였습니다. 훨씬 더 좋고 훌륭한 예는 롯과 보아스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사실상 롯을 구하고 그녀에게 행복한 미래를 제공하는 친척 구속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펼친 가상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 Now there were seven brothers. The first took a wife; and dying, he left no offspring.**

**21 And the second took her, and he died; nor did he leave any offspring. And the third likewise. 22 So the seven had her and left no offspring. Last of all the woman died also.**

**23 Therefore, in the resurrection, when they rise, whose wife will she be? For all seven had her as wife.”**

We are, in this highly unlikely narrative to imagine a family with seven unmarried brothers. What we are actually reading here is a *reductio ad absurdum* argument, a way of arguing or reasoning that reduces things to the absurd or the ridiculous.

Brother number one gets married but unfortunately dies before he can have any children. The next brother in line recognising his duty marries the widow and attempts to provide an heir for his deceased brother. Things don't go well. He also dies before an heir can be produced. This same pattern repeats until all the brothers have been married to the woman and have died producing no heirs. Finally, no doubt exhausted by the whole thing the woman also died. The question then is as follows. Who will this woman be married to in the resurrection? She had seven legitimate husbands so which will be the lucky one and get to be her partner in the afterlife? Now on the face of it it is an absurd situation. But actually it does have some value to it. Up until fairly recent times people died younger, or often quite suddenly. Many women died during childbirth. So it was not unusual, and still is not today that a Christian whose husband or wife dies desires to marry again. So someone who may have been married to two people may ask a similar question. To whom will I be married in eternity? Let us look at Jesus' answer.

**20 어느 곳에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결혼해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21 그리고 둘째가 형수와 살다가 자식 없이 죽고 셋째도 그랬으며 22 일곱이 모두 그렇게 자식 없이 죽고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23 이렇게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에서 일곱 명의 미혼 형제가 있는 가족을 상상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읽고 있는 것은 *reductio ad absurdum* 논증, 즉 상황을 터무니없거나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축소하는 논쟁이나 추론 방식입니다.

첫 번째 형제는 결혼했지만 안타깝게도 자녀를 갖기 전에 사망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인정 한 다음 형제는 과부와 결혼하여 죽은 형제에게 상속자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 또한 상속인이 생기기 전에 죽습니다. 모든 형제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상속인이 없이 사망할 때까지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마침내 그 여자도 모든 일에 지쳐서 죽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여자는 부활 때 누구와 결혼하게 될까요? 그녀에게는 7명의 적법한 남편이 있었는데 누가 운 좋게 사후 세계에서 그녀의 배우자가 될까요? 표면적으로는 터무니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려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상황입니다. 꽤 최근까지도 사람들은 젊어서 죽거나 종종 갑자기 죽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 중에 사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한 그리스도인이 재혼을

원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 명과 결혼한 적이 있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 영원히 결혼하게 될까?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 **24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Are you not therefore mistaken, because you do not know the Scriptures nor the power of God?”**

The Sadducees thought they were smart and sophisticated. They no doubt believed that they had given Jesus an impossible problem to solve. How very wrong they were. They were badly mistaken in two very important areas. The first mistake came from their ignorance of the scriptures. This would have been quite an insult to these haughty men who prided themselves on their knowledge of the Torah. The problem was that they did not appreciate the fullness of God's revelation and had failed to observe how Moses writings did in fact reveal the reality of resurrection.

Today we often laugh at the Sadducees and consider them to be foolish, ignorant men. We think of ourselves as being so much smarter and more sophisticated. And yet how many Christians today remain ignorant, or at least semi-ignorant of God's Word. We live in an age in which we are literally inundated with biblical material. At the click of a button we can have access to dozens of bibles, commentaries, word studies, biblical dictionaries, bible background references books the list goes on. I have several hundred PDF's stored on file. I possess information on almost any aspect of the bible I care to investigate. All Christians in the developed world can access this kind of information but how ignorant so many remain. When surveys are conducted on basic biblical doctrines Christians frequently cannot answer at all, or else give ridiculous answers.

Let me give you two examples. The following comes from the annual “State of theology” survey carried out by Ligonier ministries in 2022. When asked whether God can change how did those surveyed respond? How would you respond? Remember the bible is pretty clear on the immutability of God. In fact in Malachi 3:6 we read;

**“For I *am* the LORD, I do not change ”**

However 52%, over half of US Christians said He could change, learn and adapt. Let me give you one more. When asked whether we are born innocent despite the biblical teaching that we all inherit a sin nature at birth, 71% of US Christians said that we are born innocent. Why might this be? Why can't US Christians accurately answer these straightforward questions? It's very simple, it comes down to biblical ignorance. I'm sure that you devote time to reading your bible everyday. If you do sadly you are in a small minority.

The American Bible Society conducted a survey in 2020 which analysed the Bible reading practices of Americans. Prepare to be shocked. This survey found that only 9% of respondents read their Bible on a daily basis. Only 3% said they read the Bible four or more times a week. It's hard to imagine that such people either know the scriptures well themselves, or are equipped to accurately present the gospel to others. So sadly for many contemporary Christians Jesus words hold true. **Are you not therefore mistaken, because you do not know the Scriptures.**

The second serious error the Sadducees had made was in failing to understand the power of God. Their scriptural ignorance no doubt contributed to this. Let me explain why. What impression do you get from reading the opening chapters of Genesis? Are you left in any doubt regarding the awesome creative power of the Sovereign God of the universe? Are you left with the feeling that there might be some limitations on what God can accomplish? I certainly hope not. God created everything that exists in all its wonder and complexity in six literal days. He did it simply by speaking it into existence. So with this in mind do you not think it possible that God is capable of firstly raising people back to life and secondly of creating a different kind of life for them in the future. We are not raised again the same, we are raised in new resurrection bodies that will carry us through eternity. So the Sadducees were very badly mistaken. They did not properly know or understand God's Word and the God they served was a weak and impotent God. Let us read on.



## 24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똑똑하고 정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께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주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들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영역에서 크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은 토라에 대한 지식을 자랑스러워하는 이 거만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충만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세의 글에서 부활의 실재를 어떻게 계시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사두개인들을 비웃으며 그들을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로 여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훨씬 더 똑똑하고 정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거나 대충 아는 정도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자료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수십 개의 성경, 주석, 단어 연구, 성경 사전, 성경 배경 참고 도서 목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 수백 개의 PDF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고 싶은 성경의 모든 방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모든 기독교인은 이런 종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지 모릅니다. 기본적인 성경 교리에 관한 질문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전혀 모르거나 터무니없는 대답을 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Ligonier 사역에서 실시한 연례 "신학 현황" 설문 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실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 매우 분명합니다. 실제로 말라기 3:6에 기록하길

### “나는 여호와라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52%, 즉 미국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이 그분이 변화하고 새로 배우고 적응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죄없이 태어나느냐는 질문에 미국 기독교인의 71%가 죄가 없이 태어난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미국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간단한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성경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슬프게도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소수에 속합니다.

미국성서공회는 2020년에 미국인들의 성경 읽기 관행을 분석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충격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만이 매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 성경을 읽는다는 응답자는 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잘 알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두개인들이 저지른 두 번째 심각한 실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성경적 무지가 의심할 바 없이 이 일에 기여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의 첫 장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우주 주권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6 일 동안 경이롭고 복잡하게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은 첫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고, 두 번째로 미래에 그들을 위해 다른 종류의 삶을 창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과 같은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갈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약하고 무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 **25 For when they rise from the dead, they neither marry nor are given in marriage, but are like angels in heaven.**

The Lord Jesus now gives them some additional information. Many in Jesus day and I suppose still today think of heaven as just being a glorious version of earth. It's impossible for us here on earth to have any comprehension of just how awesome heaven will be. The bible does not reveal very much, so the truth is that it will be a glorious surprise for all of us. However as revealed here the earthly institution of marriage will cease in heaven. Birth and death belong in this world and will not be a part of the world to come. Of course sexual relations here on earth between a husband and a wife are not solely designed for the procreation of children. But this was the primary purpose when it came to levirate marriage. So in the eternal realm there will not be sex or marriage. Now some people are saddened by this.

I know a number of people who are greatly looking forward to being reunited with a much loved husband or wife. So the prospect of not being married as they were here on earth disappoints them. I firmly believe they will get to experience a joyful reunion. But there will not be marriage as we experience it here. This however does not exclude love, companionship and happiness which will be there in abundance. I believe that our relationship with Jesus and with all of our brothers and sisters will be so intense and so filled with love and affection that all earthly marital bliss will seem shallow and small by comparison.

The Lord Jesus goes on to tell us that we will be like the angels in heaven. It's important that we understand what Jesus is not saying here. He is not saying that we will become angels, we will not. Sorry to any of you hoping to get some wings. Nor is He saying that in all regards we will be like angels. There will always be notable differences, we are different creatures and will always remain so. What He is saying is that in some respects we will be like them. They do not marry or have sexual relationships and neither will we. Let's find out how this episode concludes.

## **25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며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주 예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몇 가지 추가 정보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단지 영광스러운 지구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멋진 곳일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많은 것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놀라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계시된 바와 같이 지상의 결혼 제도는 천국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탄생과 죽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다가올 세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관계는 단지 자녀 출산을 위해서만 고안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연혼 levirate marriage 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영생에서는 성관계도 결혼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슬퍼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와 재회하기를 몹시 고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결혼했던 것처럼 영생에서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그들을 실망시킵니다. 저는 그들이 행복한 재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결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기에 풍성하게 있을 사랑, 동료애, 행복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강하고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모든 결혼이 주는 행복이 보잘 것없이 작게 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천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날개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천사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눈에 띄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과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이며 항상 그렇게 유지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그들과 같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성적인 관계도 갖지 않으며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보시다.

**26 But concerning the dead, that they rise, have you not read in the book of Moses, in the *burning bush passage*, how God spoke to him, saying,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27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the God of the living. You are therefore greatly mistaken.”**

The Lord Jesus now takes the Sadducees back to the issue of resurrection. These supposedly wise and learned men were sadly ignorant of what the bible taught on this issue. I have noted before how important it is when we are defending a position or making a case that we stand upon God's Word. People's opinions and ideas fluctuate and change over time, but God's Word stands true and solid.

As I said before the Sadducees only believed that the Torah (the Law of Moses) was God's revelation to men. So the Lord Jesus very cleverly asks them to think about an incident that takes place in the book of Exodus. This is the second book of the Torah, which means it was written by Moses. It also means that they were very familiar with what it said and held it to be true. The incident Jesus flags here is when Moses encountered God in the burning bush (Exodus 3). Today of course with the benefit of chapters and verses I can easily direct you where to go. In Jesus day you would reference a portion of scripture by identifying a notable incident, this is why Jesus refers to it as the “burning bush passage.” As you know God spoke to Moses from the bush. It's what, or more accurately the verb tenses that God uses that Jesus wants His hearers to appreciate.

Let me give you an example. Suppose I was to stop a 6<sup>th</sup> grade elementary aged student as they came out of school. If I asked them where they went to school they might say, “I am a student at Anyang elementary school.” We use I am to refer to a situation that is ongoing or in the present tense. If two years later I bumped into that same student and again asked the same question they might say, “I was a student at Anyang elementary but now I am a student at Hillside Middle school.” You see how the tense changes. They wouldn't refer to their current status and say that they were still, an ongoing student at elementary school. Things that took place, and finished in the past are referred to in the past tense.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today's passage. Allow me to explain.

**26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모세의 떨기나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했느**

냐? 27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주 예수님은 이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 문제를 다시 언급하십니다. 소위 현명하고 학식 있는 이 사람들은 슬프게도 이 문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무지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옹호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견고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두개인들은 토라(모세의 율법)만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교묘하게 요청하십니다. 이 책은 토라의 두 번째 책으로,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들은 그 책의 내용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사건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출애굽기 3 장). 오늘날에는 장과 절의 도움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쉽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주목할 만한 사건을 식별하여 성경의 일부를 언급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불타는 떨기나무 구절 *burning bush passage* "라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동사 시제를 사람들이 알아차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 학년 학생이 퇴교할 때 제가 그에게 말을 건다고 가정해 봅시다. 학교가 어디냐고 물으면 “안양초등학교 학생이에요”라고 대답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나 현재 시제를 언급하기 위해 I am 을 사용합니다. 2년 뒤에 같은 학생을 만나 같은 질문을 하면 “안양초등학교 학생이있었는데 지금은 힐사이드중학교 학생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제가 어떻게 변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재 중학생이기 때문에 여전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 끝난 일은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설명하겠습니다.

Here we can see a basic Old Testament timeline. There are always disputes about when ancient events took place, but what I want you to note is where Abraham, Isaac and Jacob are placed on the line in relation to Moses. As you can see they were all long dead and gone before Moses was born. But look at how God spoke about these three men. He didn't say to Moses that, He was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God said, I am the God of these ancient patriarchs. This means that these men are not dead. They have not ceased to exist. They are alive and well and in relationship with God because He raised them from the dead. Resurrection is a real thing. So you see Moses did indeed teach the doctrine of resurrection. Moses, albeit indirectly showed that God delivers and preserves all who trust in Him.

That He is the God of the living gives us wonderful hope for the future. The same resurrection power that raised and has preserved Abraham, Isaac and Jacob is still working today.

The verse ends with Jesus' damning indictment on these men. They might have thought of themselves as being smart, sophisticated, wise and biblically literate. But they were wrong. In many of their beliefs, and especially when it came to death and resurrection they were greatly mistaken. Let us be wise and diligent students of God's Word so that such a criticism may never be levelled at us.

여기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구약의 연대기를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논쟁이 있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모세와 관련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디에 있는 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오래전에 죽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사라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모세에게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유대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 있고 건강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실제로 부활의 교리를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미래에 대한 놀라운 희망을 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활케하시고 보존하신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정죄로 끝납니다. 그들은 자신이 똑똑하고 정교하며 현명하고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의 믿음, 특히 죽음과 부활에 관한 믿음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러한 비판이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합시다.

###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오늘의 성경 구절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1 Know the scriptures**

In today's passage Jesus accused the Sadducees of being ignorant of God's Word. This would have been a great insult to these scholarly men. But of course the Lord Jesus was quite right. They were wilfully ignoring large parts of God's revelation and were also guilty of not properly understanding the part they did accept as scripture.

I spoke during the sermon about the terrible ignorance of many believers today. We might ask whether things are worse today than they used to be. Are Christians more or less biblically literate than in the past? I suppose we could argue it either way. Certainly we may have more distractions today than Christians in the past. In our hectic and busy lives we often push bible reading and bible study into the margins. But in the past people were just as busy struggling to survive. So people both now and in the past could justifiably claim that they just don't have the time to read and study God's Word.

My own feeling is that today we have no excuses for our lack of biblical knowledge. We are overwhelmed with biblical material. We have access to multiple bibles, commentaries or study guides in a variety of forms. If you don't want a paper bible or study guide you can download apps to your mobile phone. You can watch bible content on YouTube. You can even listen to an audio bible as you commute to work or exercise. So really the only issue comes down to your desire or motivation. Do you not know the scriptures because you are lazy, or even worse because you don't care?

You see there is a real danger to not properly knowing scripture or biblical doctrine. It goes way beyond not knowing basic biblical trivia. When we don't know the scriptures we have no anchor for truth of belief. We may be blown wherever the wind may blow us.

Furthermore when we don't know what we believe how on earth can we share the truth with others. Without a good solid grounding in God's Word we are totally ineffective in carrying out His command to take the gospel to the world.

So let us get serious. We need to devote our time and energy to reading, studying and thinking upon God's Word. Make the decision right now to get to better know God's Word.

## **1 성경 말씀을 알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고 비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학자들에게 큰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옳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많은 부분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었고, 또한 그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죄도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 중에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끔찍한 무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늘날 상황이 예전보다 더 나빠졌는 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보다 성경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두가지 경우를 다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게 더 많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애쓰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오늘날 우리의 성경 지식 부족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에 관한 자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여러 성경, 주석 또는 학습 가이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종이 성경이나 학습 가이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휴대폰에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YouTube에서 성경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이나 운동 중에도 오디오 성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유일한 문제는 여러분의 욕구나 동기에 달려 있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관심이 없어서 성경을 모르십니까?

성경이나 성경적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제로 위험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경의 상식을 모르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믿음의 진리를 위한 닳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면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모를 때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진리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한 기초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쳐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 지금 바로 결정을 내리십시오.

## **2 The God of the living not of the dead**

There is a very important distinction that separates the Lord Jesus Christ from all other religious leaders or founders. The Buddha, Confucius, Mohammed and any other religious founder you care to mention are all dry bones in the ground. You can visit their tombs and see where their remains are at rest. The Lord Jesus is not at rest. The Lord Jesus rose and left an empty tomb. The grave could not hold Him. This is because He is not a God of the dead, He is the living God. All other religions bow down to stone idols or representations of their god. A stone idol or a statue is just that. A piece of stone or metal. It has no power, it cannot help us. But Jesus is alive. When we pray He hears our words. When we cry out we have His attention. We know He loves us because He suffered and died on our behalf. So let us never forget that we love, serve and worship the God of the living. Let us be thankful for this and take every opportunity we have to share our love of Him with others.

## 2 죽은 자가 아닌 산자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나 창시자들과 구별하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처, 공자, 무함마드, 그리고 당신이 언급하고 싶은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모두 땅속의 마른 뼈들입니다. 그들의 무덤을 방문하여 그들의 유해가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죽은 상태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죽음이 그분을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돌로 만든 우상이나 신의 이미지에 절합니다. 돌신상이나 조각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돌이나 금속 조각. 그것은 능력이 없고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분의 관심을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겪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 자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경배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맙시다. 이에 대해 감사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합시다.

